

① KB금융그룹

*b KB 금융그룹

돈의 흐름이 경제와 미래를 결정한다.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린 금융이 혁신기업과 산업 현장, 취약계층으로 제대로 흘러가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이 가능하다. 금융권이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어떤 것일까. 금융권의 로드맵을 따라가 봤다. (편집자주)

2030년까지 110조 생산적·포용적 금융 첨단산업 기업 키우고 취약계층 지킨다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과 국민의 회복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포용적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0일 KB금융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추진한다. 미래 산업과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자기와 성장을 지원해 경제의 성장과 회복을 함께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110조원 가운데 생산적 금융은 93조원, 포용적 금융은 17조원이다. 생산적 금융은 AI와 반도체, 에너지 전환, 국가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자본을 공급하고, 포용적 금융은 서민과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본 공급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확대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생산적 금융... 韓 성장동력 제고

KB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단순한 기업대출 확대가 아닌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투자 전략으로 추진한다.

AI·반도체 등 생산적 금융 93조 공급 미래가치 중심 심사... 전문인력 확충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생태계 고도화

KB금융은 지난달 그룹의 IB와 기업금융(CB), 자산운용, 전략, 재무, 리서치 부문 임원들이 참석한 ‘제4차 KB금융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디지털 AI·AI 데이터센터)’와 국민성장펀드 확대 정책에 맞춘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KB금융은 전국 주요 거점에 구축된 CIB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출과 투자, 자본시장 서비스를 연계한 종합 금융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의 첨단 산업과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 방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 재무제표와 과거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산업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는 미래가치 중심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남 사천 KB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진행된 ‘2026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첨단전략산업심사유닛(Unit)’을 신설해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했고, KB증권도 국가전략산업 분야 심사역량을 확대했다. 여기에 그룹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스터디 포럼’을 새롭게 운영해 산업 분석과 사례 연구, 외부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영업과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KB금융은 첨단산업 기업이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투자 생태계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결성한 1600억원 규모의 ‘KB 닥테크 스케일업 펀드’는 AI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당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KB국민성장 유니콘 스케일업 펀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약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펀드는 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고 KB증권이 운용을 맡아 성장 단계별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경영·재기까지... 포용금융 확대

생산적 금융이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포용적 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또 하나의 축이다. KB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추진하며,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KB금융은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6조5000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기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신용회복과 경영컨설팅, 심리 상담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서민금융 대표상품인 ‘KB새희망홀씨Ⅱ’의 신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KB국민도약대출’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가 제도권 금융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상공인 등 포용적 금융 17조 투입 단순 자금공급 넘어 경제적 자립 지원 서민금융 상품 금리 인하·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 역시 단순한 자금 공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금융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6개 ‘KB소상공인 컨설팅센터’에서는 경영·세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만4000건이 넘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건물 전경



KB금융그룹은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EXPO KOREA 2026(이하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특화 ‘피지컬 AI(Physical AI) 돌봄 서비스’를 공개하며, 에이지테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재단·KB금융그룹 기금 출연식’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